

News

미 연준의장, 침체 장기화 우려... '마이너스 금리'엔 "고려 안해"

연합뉴스

파월 의장, "코로나 19 사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경기하강의 폭과 속도는 전례 없는 것"
"심각한 경기하강 위험이 있다. 깊고 긴 충격은 경제 생산 능력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선 "연준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로금리가 슬픈 은행들 "신용대출, 문턱을 낮췄어요"

머니투데이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고 소득이 적어 대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은퇴자나 사회초년생,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자체 대출심사 시스템을 보완·관계자, "안정적인 수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정부 규제에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초저금리까지 겹쳐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은행IB, 해외투자 시동

이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해외 IB 사업에 슬슬 시동...유럽과 미국 등 주요 투자대상국의 봉쇄조치가 점차 풀리는 분위기인 만큼 정보수집이나 투자대상 리스트업 등을 통해 유 기존 진출한 해외 IB데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막 막한 해외 IB사업의 활로를 뚫겠다는 계획

판매는 안되고, 보상부담은 커지고...시중은행 펀드 리스크 속얹이

데일리안

펀드 판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금을 보전해달라는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떼법'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은행권의 투자자 보상 검토 움직임에는 금융당국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자신이 직접 나서야하는 분쟁조정 보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체해결 권장하는 분

은행계 카드의 약진...재난지원금 신청의 심리학

이데일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지급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3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 은행이 있는 '은행계 카드사' 선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과 사용자 제한 등으로 주로 생활비적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여 등을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과 계열 카드사 위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

韓,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위 곧 상실... 보험업계는 걱정

조선비즈

다음달이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한국 위원 임기가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위원국 지위를 상실
업계에선 2023년 새로운 기준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회계 외교가 약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적신호'

한국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특고직 노동자는 제외한 채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한 채 통과되면서 보험사 및 설계사들의 희비

코로나 뒤흔든 60兆 해외부동산펀드 빨간불

디지털타임스

금융투자협회, 해외부동산펀드(공사모합계) 설정액은 11일 현재 57조9,153억원... 2조8,000억원으로 3조원에 못 미치던 지난 2010년 대비 20배
코로나19로 글로벌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등 고리를 문 악재에 해당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해외부동산펀드 수익률은 대부분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